FIXED
INCOME
STRATEGY

2026. 1. 26

글로벌채권팀

김은기 팀장/Credit Analyst
creditbond.kim@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과 투자 전략

금리 변동성에 흔들리는 연초효과

금리 변동성에 흔들리는 연초효과

올해도 작년과 같이 연초효과가 나타났으나, 연초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크게 둔화될 전망

올해도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연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작년 대비 크게 둔화됐다. 연초 국채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인해 연초 채권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연초효과가 크게 희석되는 분위기이다.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는 주로 1년 이하 단기물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채권 자금 유입은 MMF 등 단기물 위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세는 다소 부진했다. 그래서 3개월 CD금리 등 단기 금리는 작년 연말 급등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1년 이하 단기 크레딧 채권 위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됐다. 연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올해 연초효과는 주로 단기물 위주로 국한되는 분위기이다.

2월 크레딧 스프레드도 1월 대비 축소세는 유지할 전망이나, 축소 폭이 크지 않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월 금리 급등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금리 반락이 나올 수 있지만, 2월 금통위 경계감으로 인해 1월 금리 급등의 여진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변동성이 클 때, 유동성이 떨어지는 크레딧 채권의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만기 보유 관점과 롤링효과(Rolling Effect)로 인해 2년 이하 단기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섹터별 스프레드에서 여전채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초와 같이 올해 연초에도 여전채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에도 단기 금리 하락으로 레포펀드의 설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전채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레포펀드의 수익과 비용을 대표하는 여전채 금리와 RP금리의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된 상태로 레포펀드의 여전채 매수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은 유지되고 있다.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우량/비우량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됐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우량 회사채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우량 회사채의 약세는 서서히 조정될 전망이다. 단기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단기물 위주로 비우량 회사채의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리서치센터 글로벌채권팀
김은기 팀장/Credit Analyst
creditbond.kim@samsung.com

REPORT
CONTENTS

01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 4p

02 크레딧 채권 투자 전략 18p

PART 01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

1월 크레딧 시장 리뷰: 작년과 같이 연초효과와 여전채 강세, 그러나 축소 폭 둔화

작년과 같이 연초효과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와 여전채 /우량 등급 위주로 강세를 보였지만,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크게 둔화됐음

▶ 연초 채권자금 유입으로 연초효과가 나타났지만, 1월 금통위 이후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단기 크레딧물 위주로 스프레드가 축소됨

▶ 올해도 레포펀드의 추가 설정에 따른 여전채 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작년과 같이 여전채 위주로 강세가 지속됐음

▶ 비우량 회사채 대비 유동성이 좋은 우량 회사채 위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우량/비우량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됨

섹터별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5.12월	변동 폭	**1월**	**변동 폭**
공사채	17.7	15.8	21.4	18.9	53.2	38.4	23.9	22.2	22.9	3.3	**23.8**	0.9
은행채	21.0	18.2	24.0	20.4	50.8	51.5	31.6	25.2	25.4	4.1	**27.2**	1.8
카드채 AA+	37.0	30.5	49.8	39.1	109.7	75.1	45.8	39.4	41.8	1.9	**37.8**	-4.0
여전채 AA-	60.2	41.4	72.0	58.0	134.7	111.2	66.2	52.9	54.6	2.4	**51.0**	-3.6
여전채 A+	129.1	84.3	112.6	84.2	164.6	205.6	166.0	136.9	131.6	2.2	**129.7**	-1.9
회사채 AAA	31.9	28.0	36.6	30.4	81.3	58.3	40.6	35.8	33.3	3.5	**31.5**	-1.8
회사채 AA-	44.0	37.0	58.6	42.3	95.5	81.4	56.6	51.8	50.8	3.8	**48.9**	-1.9
회사채 A+	82.3	59.5	82.9	63.2	110.5	145.2	102.1	88.8	90.8	4.1	**89.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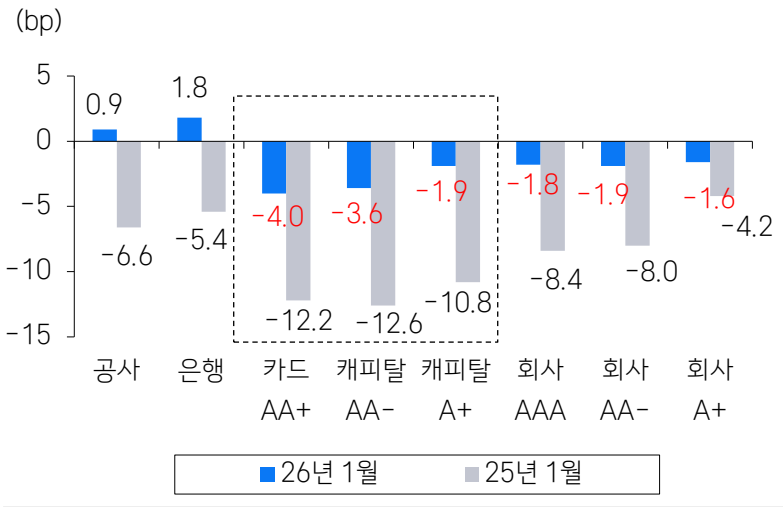
참고: 연간/분기 및 월 평균(민평 3사, 3년물), 2026년 1월은 23일 기준
자료: Infomax

작년 1월 대비 스프레드 축소 폭은 둔화됐으나, 여전채 위주의 강세 지속

올해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는 작년 대비 축소 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작년과 같이 연초 여전채 위주로 강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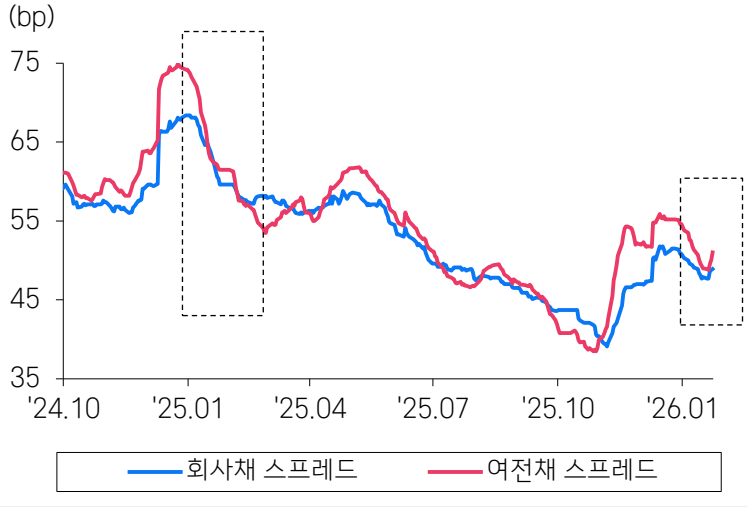
- ▶ 올해 초에도 채권 자금 재유입과 북빌딩(Book-Building)이 시작되면서 크레딧 채권 매수세로 인해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됨
- ▶ 그러나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 폭은 시장 예상과 달리 크게 둔화됐으며, 특히 1월 하순 약세로 전환
- ▶ 작년에도 회사채 대비 여전채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 초에도 레포펀드의 신규 설정이 이루어지면서 여전채 강세가 이어짐

작년과 같이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됐지만, 스프레드 축소 폭은 둔화



참고: 섹터/등급별 크레딧 스프레드(3년물 기준), 기간 1.1~1.23일
자료: Infomax

연초 회사채 대비 여전채 위주의 강세 흐름이 지속됐으나, 1월 하순 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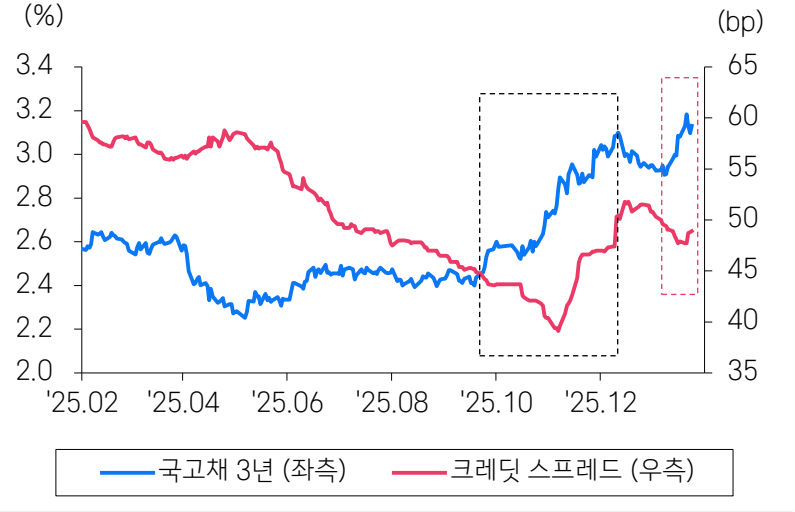
참고: 여전채 및 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 만기)
자료: Infomax

연초 국채 금리 급등 등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 둔화

올해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이 둔화된 주요한 요인은 국채 금리 급등 등 금리 변동성 확대됐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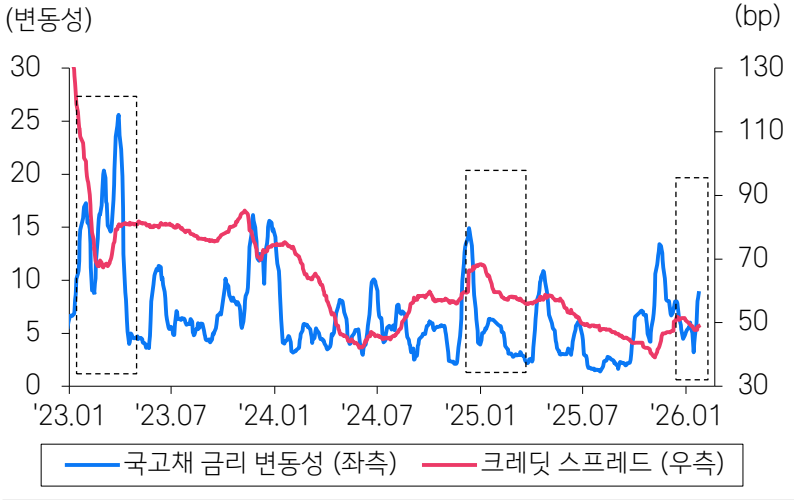
- ▶ 1월 금통위에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후 고환율 지속, 일본 금리 급등 및 추경 우려로 국채 금리 급등이 이어짐
- ▶ 국채 금리 급등 초반, 유동성이 부족한 크레딧물 금리가 국채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소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 그러나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채권 투자 심리가 위축으로 크레딧 채권 매수 수요도 둔화되면서 연초효과가 반감되는 모습

연초 국채 금리 급등이 연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을 둔화시키고 있음



참고: 국고채 3년물 금리 및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최근 국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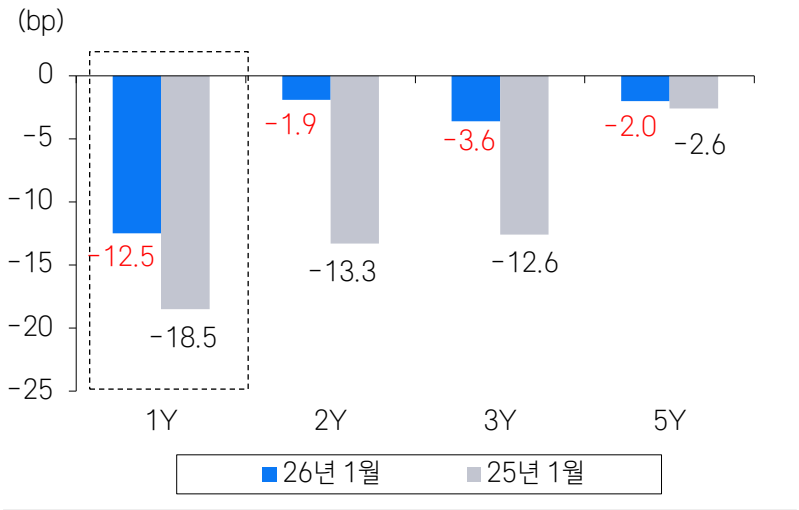
참고: 국고채 3년물 1개월 변동성,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연초효과는 1년 이하 단기물 위주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음

연초 국채 금리 상승으로 작년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이 둔화됐으나, 1년 이하 단기 크레딧 채권의 투자 수요는 지속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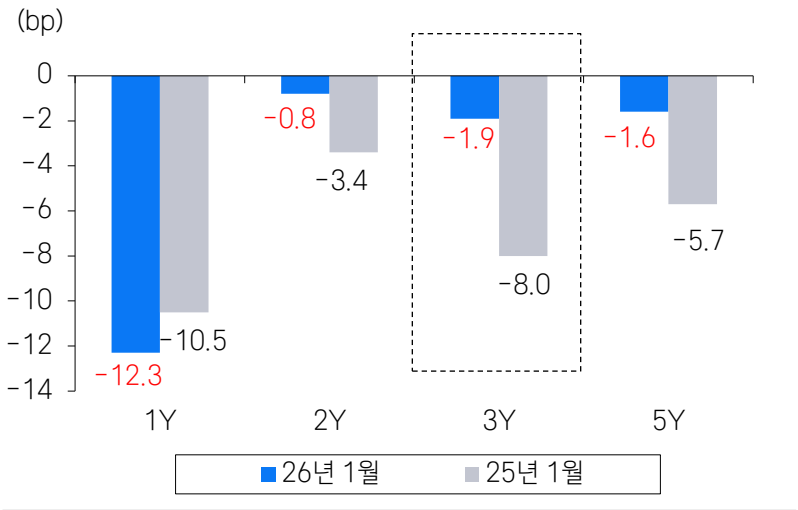
- ▶ 만기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을 비교해 보면, 1년물 이하 단기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이 다른 만기에 비해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 ▶ 전반적으로 작년 연초 대비 올해 연초 스프레드 축소 폭이 둔화됐지만, 회사채 1년물의 경우 작년 연초에 비해 스프레드 축소 폭이 더 큼
- ▶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듀레이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단기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여전채 AA-등급: 1년 이하 단기물 강세



참고: 만기별 크레딧 스프레드, 기간 1.1~1.23일
자료: Infomax

회사채 AA-등급: 1년 이하 단기물 강세



참고: 만기별 크레딧 스프레드, 기간 1.1~1.23일
자료: Infomax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연초 CD금리 하락 이후 추가 하락은 일단락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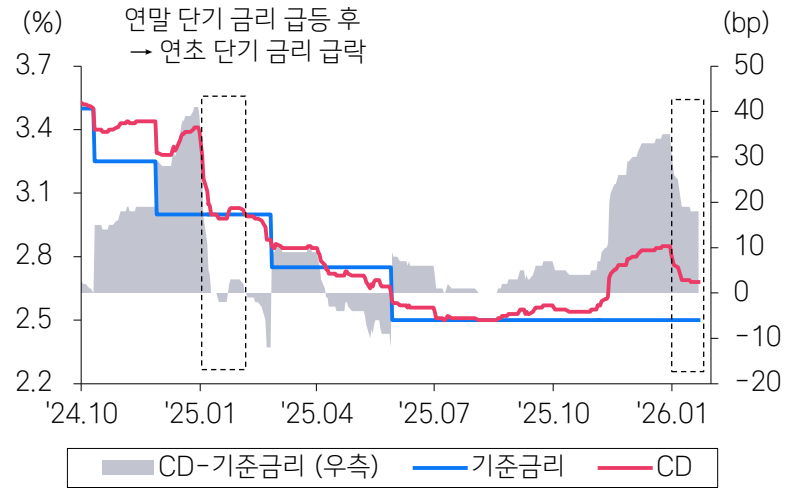
연초 MMF등 단기자금 유입으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국채 금리 상승과 CD-기준금리 스프레드를 감안해 추가 하락은 일단락

▶ 작년 말 급등했던 CD금리가 연초가 되면서 MMF 등 단기자금 재유입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다시 정상화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금리 동결 전망과 최근 국채 금리 상승으로 CD금리와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CD금리의 추가 하락은 일단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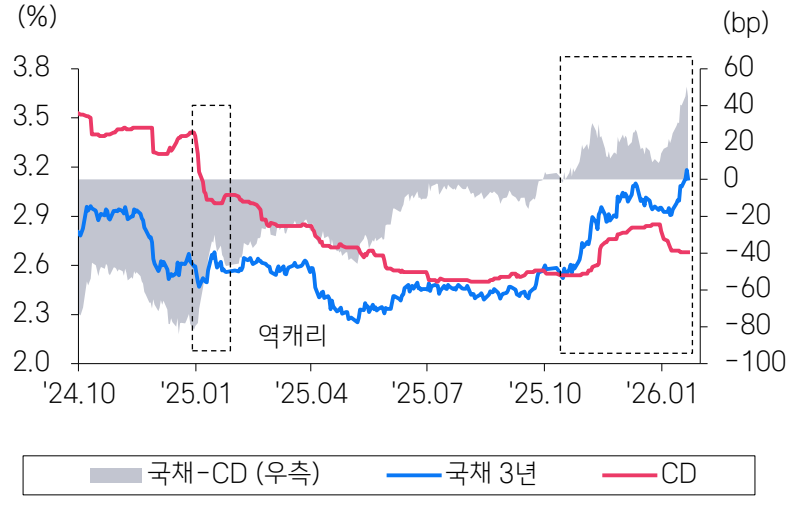
▶ 올해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면서, CD-기준금리 스프레드는 작년 대비 높은 레벨을 유지할 전망

연말 단기 금리인 CD금리 급등 후, 연초 CD 금리 정상화



참고: 기준금리 및 CD 3개월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국채 금리 상승 기조와 CD-기준금리 스프레드 고려 시, 추가 하락은 일단락



참고: CD 3개월 금리와 국채 3년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회사채 금리와 CD금리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CP금리의 추가 하락도 일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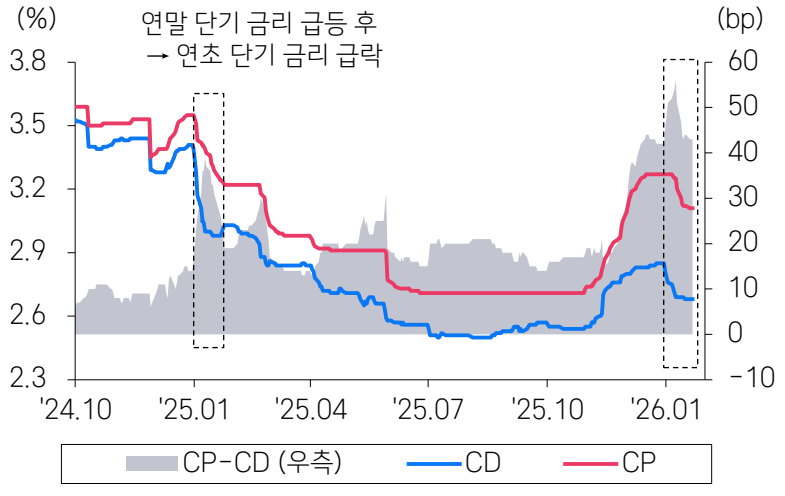
연초 CD금리 하락과 동반해서 CP금리도 하락했으나, 회사채 금리와 CP금리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CP금리의 추가 하락도 일단락

▶ 연초 CD금리 하락과 동반해서 CP금리도 하락했으나, CP금리 하락 속도가 느리게 반응하면서 CP-CD 금리 스프레드는 높은 수준

▶ 그러나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장기 자금 조달의 회사채 금리와 단기 자금 조달의 CP금리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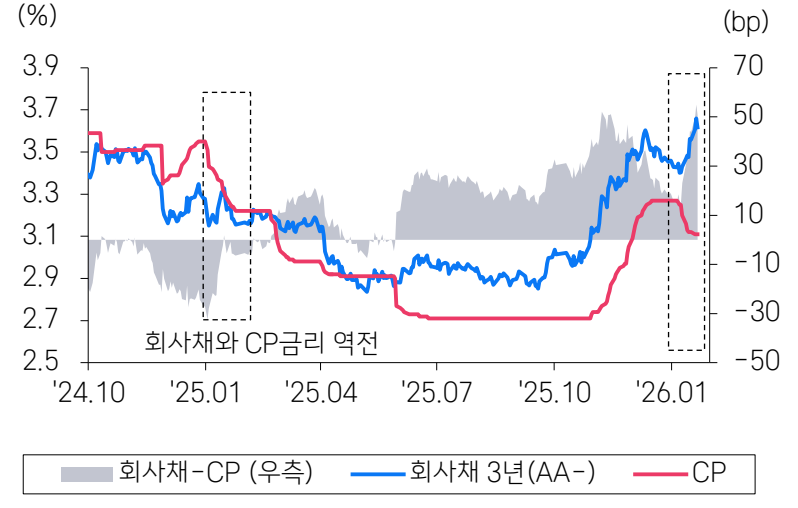
▶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낮은 CP 조달에 따른 발행이 증가면서, 높은 CP-CD금리 스프레드에도 CP금리의 추가 하락은 일단락될 전망

연초 CD금리 및 CP금리도 하락하면서, CP-CD 스프레드도 정상화될 전망



참고: CD 3개월 금리와 CP(A1등급, 3개월) 금리 추이, 단기 크레딧 스프레드(CP-CD금리 차이)
자료: Infomax

기업의 단기 조달인 CP 금리와 장기 조달인 회사채 금리의 격차가 확대



참고: CP(A1등급, 3개월) 금리 및 회사채(AA-등급, 3년물)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1월 연초효과는 12월 국고채 지표물 변동의 일시적 스프레드 확대 폭 만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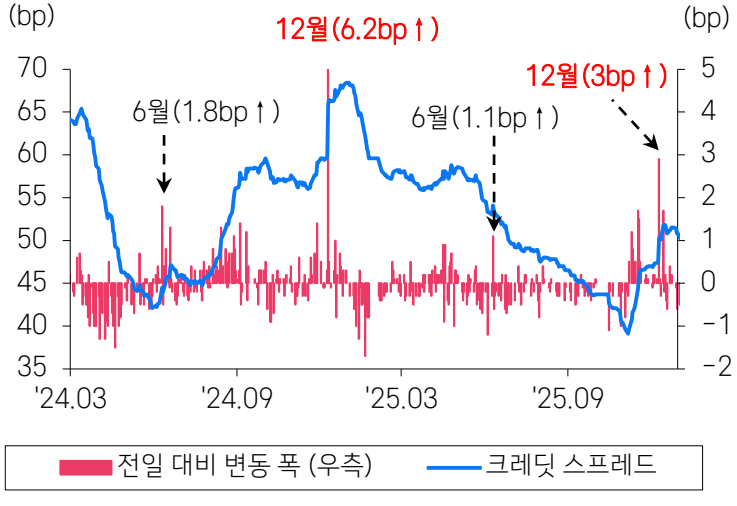
12월 국고채 지표물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은 1월 내에 조정이 끝날 전망

▶ 12월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는 국채 3년 신규물 발행에 따른 지표물 금리가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스프레드 확대가 대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일시적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는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1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로 해소되는 경향이 큼(1.2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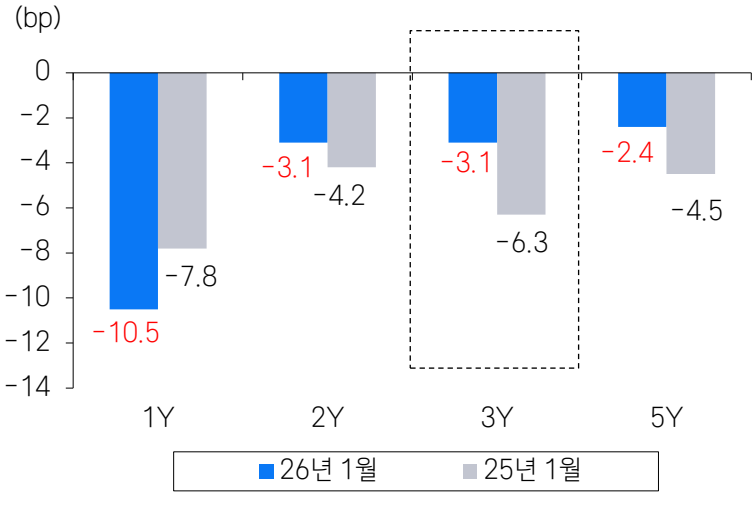
▶ 작년과 올해 1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거의 12월 10일 지표물 금리 변동에 따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과 일치하고 있음

12월 국고채 지표물 변경에 따른 일시적 스프레드 확대는 연초에 해소



참고: 국고채 3년물 금리 일간 변동 폭 및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작년 및 올해 1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12월 일시적 확대 폭 해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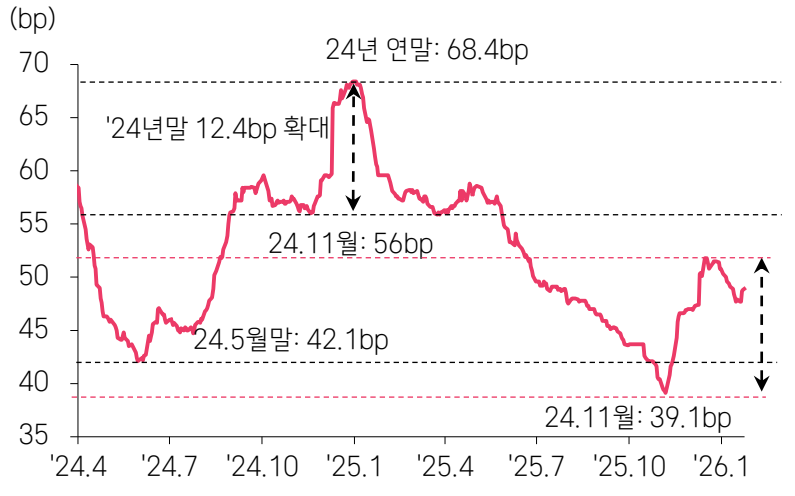
참고: 만기별 크레딧 스프레드, 기간 1.1~1.20일
자료: Infomax

2월 연초효과의 가능성은 향후 국채 금리 방향성과 변동성에 연동할 전망

2월에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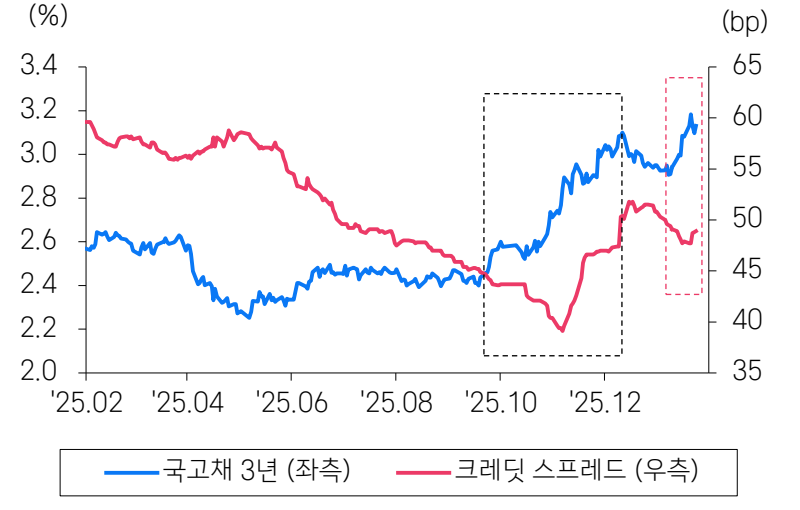
- ▶ '25년말 대비 현재까지 크레딧 스프레드는 2bp 내외 축소되면서 작년 11월 저점 대비 추가 축소 여력은 약 10bp 내외로 판단됨
- ▶ 최근 기준금리 대비 60bp 가량 확대된 국채 3년 금리 레벨은 높지만, 2월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금리 변동 요인 많음
- ▶ 금리 상승세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크레딧 채권 투자 심리 위축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둔화되면서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

작년 11월 전저점 대비 축소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음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2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국채 금리 반락과 변동성에 의해 좌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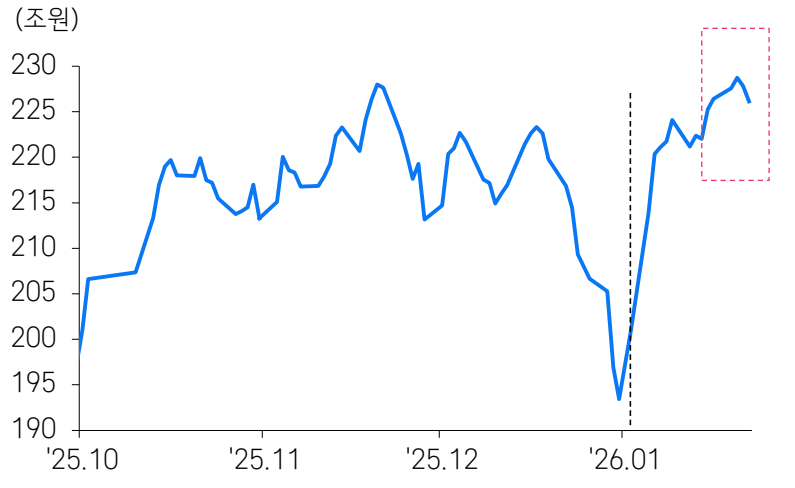
참고: 국고채 3년물 금리 및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등급, 3년물)
자료: Infomax

연초 이후 단기자금 유입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채권형 펀드 유입세 둔화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이 둔화됐으며, 2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도 금리 방향성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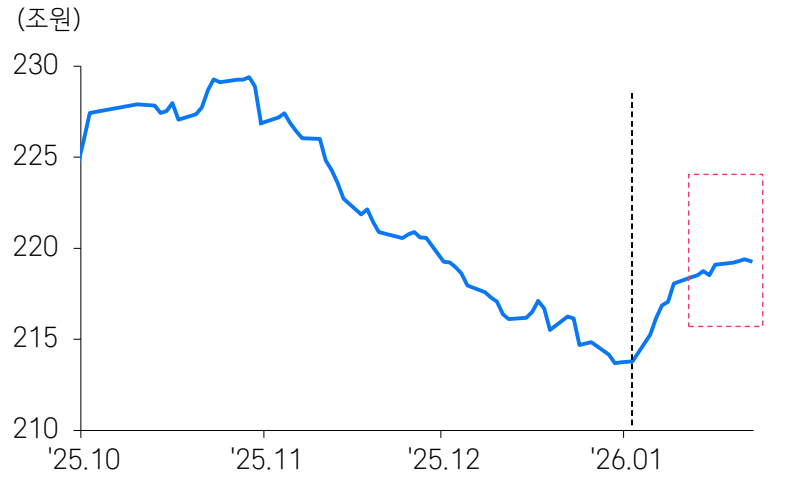
- ▶ 작년 연말 큰 폭으로 유출됐던 MMF 등 단기자금은 연초 빠른 유입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초 이후에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음
- ▶ 그러나 채권형 펀드 자금은 연초 빠른 유입세를 보였으나,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월 중순 이후 유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 2월 국채 금리 방향성이 단기자금 및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쳐, 2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MMF 등 단기자금 유입세는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유입 중



참고: MMF 수탁고 추이
자료: Infomax

채권형 펀드 자금은 연초 이후 유입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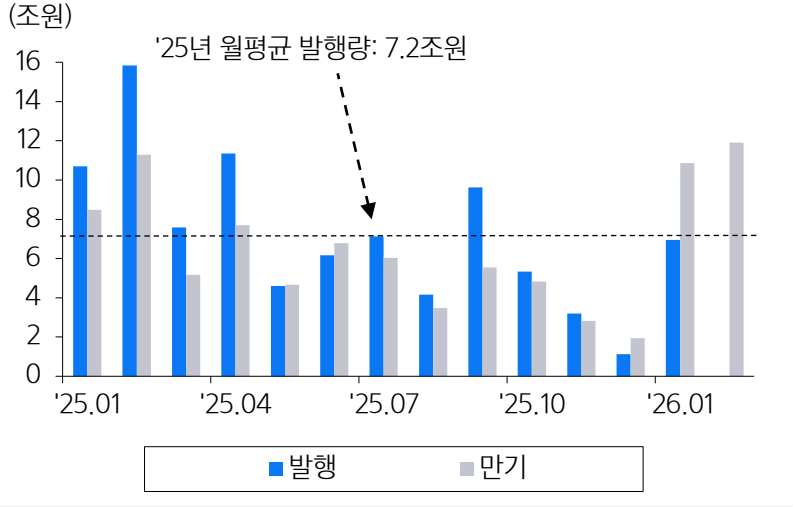
참고: 채권형 펀드 수탁고 추이
자료: Infomax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연초(1~2월) 회사채 발행이 4월로 이연될 전망

연초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1월 발행이 시장 예상보다 감소했으며, 2월도 발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 → 4월로 이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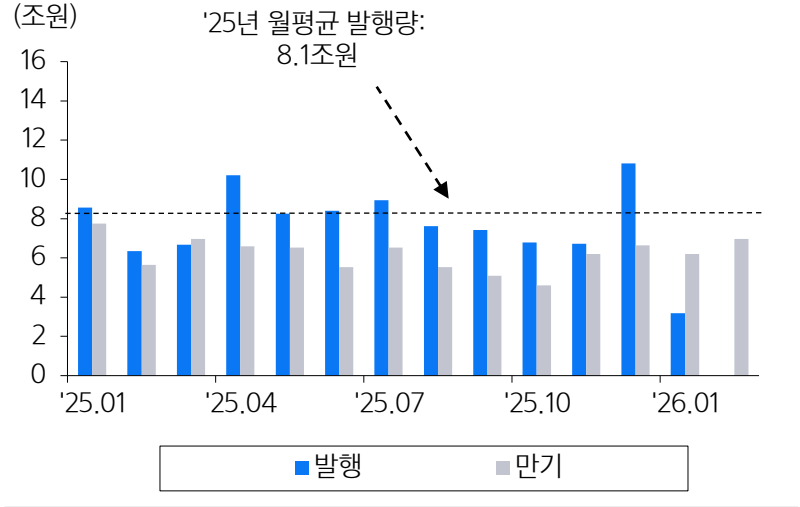
- ▶ 과거 1월 연초에 발행 러쉬로 인해 연초 발행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1~2월 발행이 4월로 이연될 전망
- ▶ 1월 높은 금리 레벨이 2월에도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으로 결국 2월 회사채 및 여전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전망
- ▶ 수급적으로 4월 WGBI 자금 유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금리 레벨이 낮아진 이후 4월 이후 발행이 늘어날 전망

1월 대규모 만기에도 연초 높은 금리 레벨로 발행이 크게 감소



참고: 월별 일반 회사채 발행 및 만기
자료: Infomax

12월 대규모 발행 이후 연초 우호적인 발행 여건에도 발행이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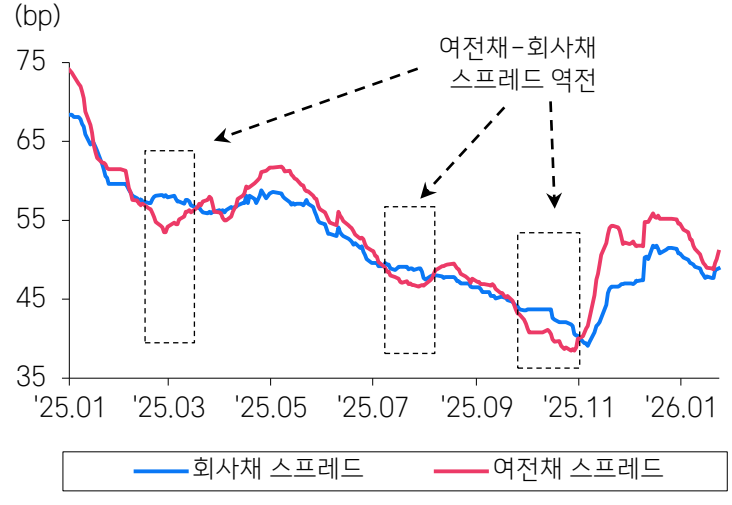
참고: 월별 여전채(카드+캐피탈채) 발행 및 만기
자료: Infomax

여전채 투자 매력 감소에도 레포펀드의 수급으로 2월에도 강세가 이어질 전망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로 단기 크레딧물 선호와 레포펀드 투자가 이어지면서, 2월에도 회사채 대비 여전채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전망

- ▶ 작년 11월 이후 연말 요인과 레포펀드의 여전채 매수가 둔화되면서 여전채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됐으나, 연초에는 재축소됨
- ▶ 연초 회사채 대비 여전채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 중 → 여전채의 가격 메리트 감소
- ▶ 그러나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로 단기 크레딧물 선호와 레포펀드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2월에도 여전채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전망

연초 여전채 위주의 강세로 여전채와 회사채 스프레드 격차가 빠르게 축소 중



참고: 여전채 및 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하면서 여전채의 투자 매력이 감소

참고: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물 기준)
자료: Infomax, 삼성증권

여전채-RP 금리 차 확대로 레포펀드의 설정으로 여전채 매수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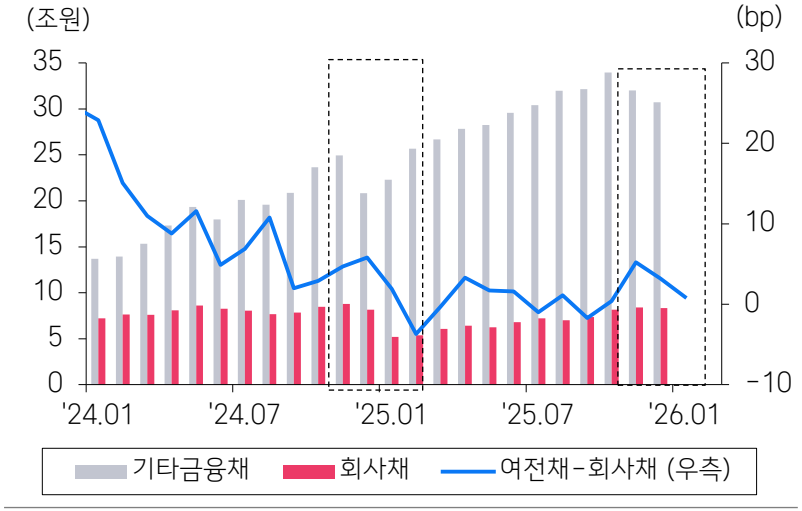
레포펀드의 운용 수익과 조달 코스트의 차이인 여전채-RP금리 차 확대로 레포펀드의 설정과 여전채 매수가 지속될 전망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레포펀드의 설정과 여전채 매수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 사항이 컸음

▶ 그러나 최근 채권 금리의 빠른 상승과 여전채-RP금리 차가 확대되는 등 레포펀드의 설정에 우호적인 여건을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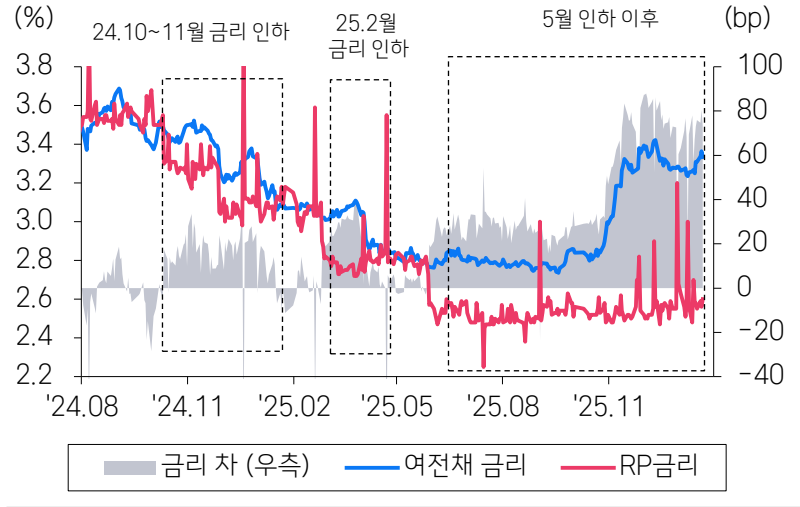
▶ 레포펀드의 운용수익과 조달 코스트의 차이인 여전채-RP 금리 차 확대로 레포펀드의 설정과 여전채 매수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

기관간 Repo에서 여전채 잔액이 연말 감소했지만, 연초에는 다시 확대 패턴



참고: 여전채- 회사채 스프레드(AA-등급, 3년물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Infomax

여전채-RP 금리 차 확대로 레포펀드의 설정과 여전채 매수가 지속될 전망



참고: 여전채 금리(AA-등급, 2년물), RP금리(종합)
자료: Infomax

2월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 요약

2월 크레딧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전망과 크레딧 스프레드 방향성

구분	요인	전망 요약	1월 영향도 (-3~+3)	2월 영향도 (-3~+3)
국채 금리	국채 금리 방향성	기준금리 대비 높은 스프레드 수준의 국채 금리 레벨에도 2월 금통위의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 반락이 크지 않을 전망	-2	-1
	국채 금리 변동성	2월 금통위 경계감 및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국채 금리의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	-2	-2
수급	채권관련 자금 추이	금리 상승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연초 채권관련자금 재유입 규모는 1월 대비 둔화될 전망	+3	+2
	회사채 발행 추이	1월 이연될 발행으로 인해 2월 이후 회사채 발행이 증가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2월 발행 규모 증가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감소할 전망	+1	-1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	시장의 예상보다 발행이 감소하겠으나, 발행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면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전망	+3	+3
펀더멘탈	신용등급 변동성	2월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성은 크지 않아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0	0
크레딧 스프레드 방향성		2월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폭은 1월 대비 둔화되면서 강보합세 전망. 12월 일시적으로 확대된 스프레드 조정이 1월에 끝나면서, 금리 방향성과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등 강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예상보다 스프레드 축소 폭 둔화 전망	**+3**	**+1**

참고: (-) 부정적인 영향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 긍정적인 영향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자료: 삼성증권

PART 02

크레딧 채권 투자 전략

섹터별 스프레드 변화: 공사채 약세와 여전채 강세 등 수급에 따른 섹터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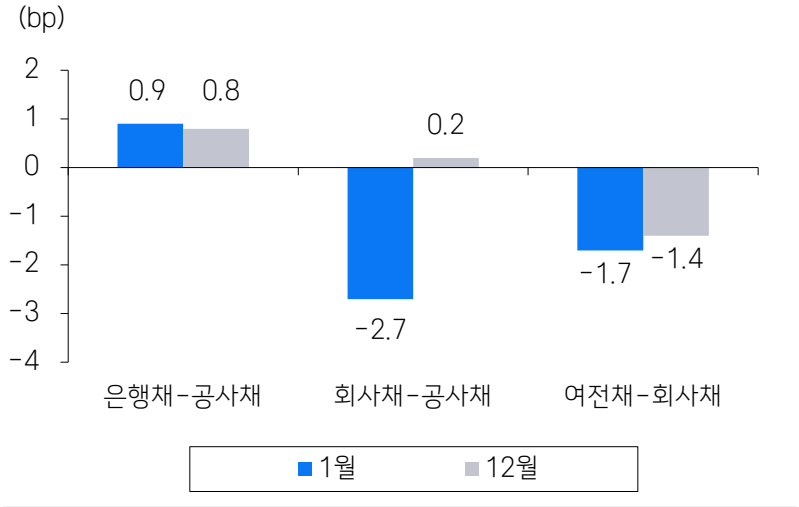
공사채 약세로 회사채-공사채 스프레드 확대 및 여전채 강세로 여전채-회사채 축소 등 수급에 따른 섹터별 차별화

▶ 공사채 약세로 인해 회사채-공사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됐으며, 여전채 강세로 인해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됨

▶ 1월 공사채 및 은행채 발행은 예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여전채 및 회사채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수급에 따른 섹터별 차별화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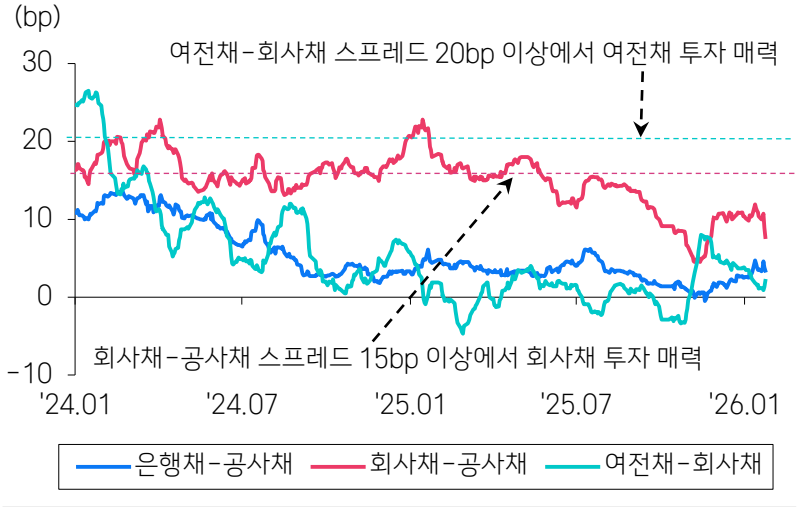
▶ 2월 공사채 발행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AAA등급의 수급 약세에도 회사채/여전채의 고금리 채권 수요로 섹터별 차별화 지속될 전망

월간 섹터별 스프레드 변화: 공사채 약세 및 여전채 강세



참고: 3년물 기준, 공사채/은행채/회사채(AAA), 여전채-회사채(AA-)
자료: Infomax

섹터별 스프레드 축소 흐름 속에서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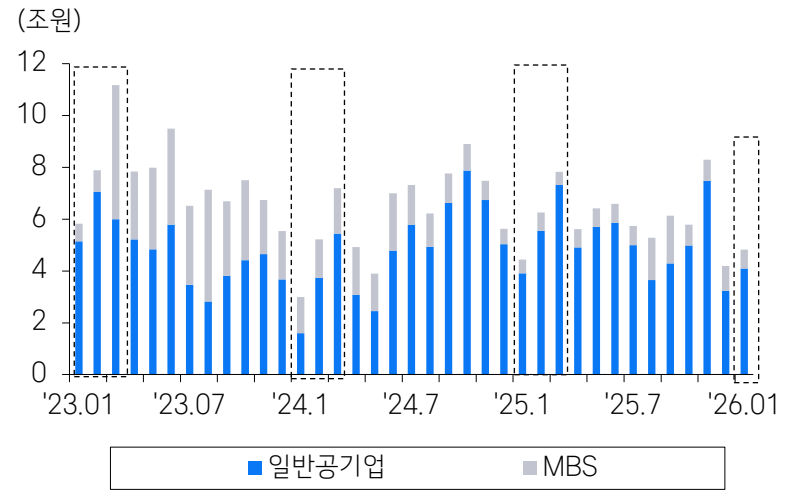
참고: 3년물 기준, 공사채/은행채/회사채(AAA등급), 여전채-회사채(AA-등급)
자료: Infomax

1월 연초 공사채 및 은행채 발행 증가에서 시작된 수급 부담 심리

연초 크레딧 강세의 효과는 유동성이 좋은 우량 등급 위주로 반영될 전망으로 상대적으로 비우량 등급의 약세로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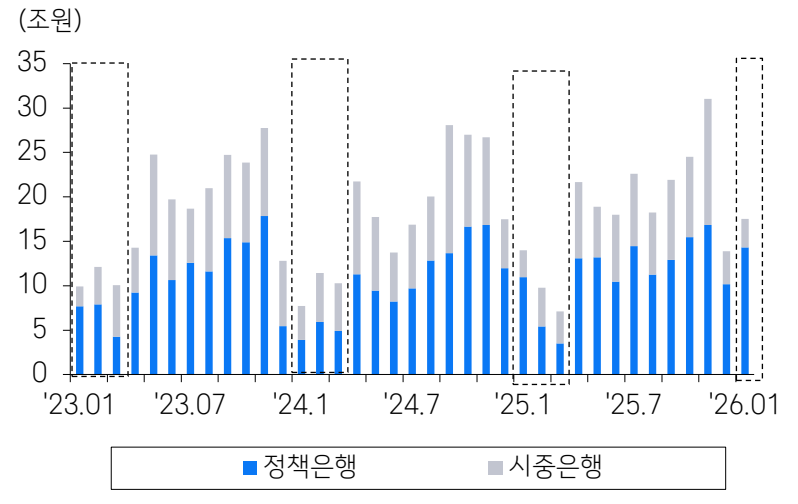
- ▶ 1월 공사채 발행은 예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으며, 은행채 발행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급 부담 우려를 자극하고 있음
- ▶ 특히 올해 공사채는 재정 확대에 따른 발행 증가 우려와 은행채는 산금채 발행 증가와 예금 이탈 우려로 발행 증가 우려가 큰 편임
- ▶ 2월 공사채가 본격 발행되면서 공사채/은행채 수급 부담 우려를 자극 → 단기 고금리 수요측면에서 회사채/여전채의 투자 메리트 부각

올해 1월 공사채 발행은 예년에 비해서 증가



참고: 월간 공사채 발행 규모
자료: Infomax

올해 1월 은행채 발행은 예년에 비해서 다소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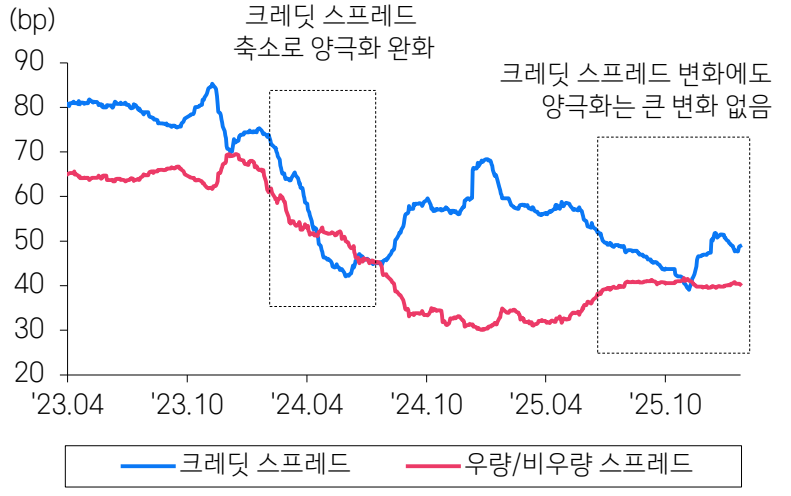
참고: 월간 은행채 발행 규모
자료: Infomax

등급간 스프레드: 유동성이 좋은 우량 등급 위주로 강세가 시작될 전망

연초 크레딧 강세의 효과는 유동성이 좋은 우량 등급 위주로 반영될 전망으로 상대적으로 비우량 등급의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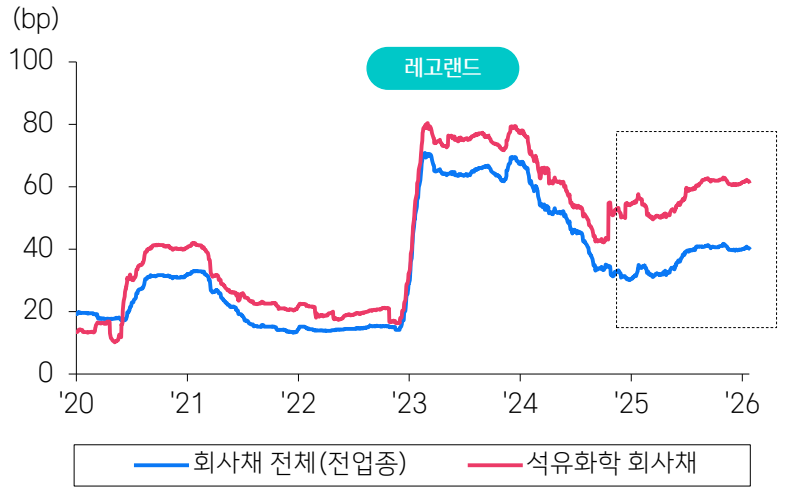
- ▶ 연초 크레딧 강세도 수급 요인으로 인한 강세로 우량/비우량 스프레드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 우량/비우량 양극화 우려를 자극하고 있던 석유화학 기업의 양극화 우려도 일단락되면서, 추가 확대가 제한되고 있음
- ▶ 2분기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남아 있지만, 단기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쇄되면서 당분간 양극화 심화 우려는 크지 않음

크레딧 스프레드 변화에도 우량/비우량 스프레드는 큰 변화가 없음



참고: 우량/비우량등급 간 스프레드(회사채 A+등급-AA-등급 스프레드)
자료: Infomax

석유화학 기업의 양극화 우려도 일단락되면서, 추가 확대가 제한되고 있음



참고: 석유화학 주요 기업 회사채 3년물 A등급-AA등급 금리 차이(등급별 평균)
자료: Infomax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MEMO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